

열린 세상



김 선 영  
서울대 교수  
생명공학부

“  
셀, 네이처, 사이언스지에  
논문은 내는 것은 기  
쁘고 축하할 만한 일이  
지만 그것이 과학인을  
평가하는 최고의 잣대나  
정책의 중요 목표가 되  
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 
다.

”

**필** 자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일하다가  
1992년에 귀국하여 대학에서 근무하  
며 재미있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.  
대학에서 교수 업적을 평가할 때 학술지의 영  
향력지수 자체를 점수화하여 업적을 계량화하  
는 것이었다. 학문 분야에 따라 지수가 천차만  
별이고, 그 지수는 학술지에 대한 평가이지 해  
당 논문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 
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. 그러나 당시에 교수  
들은 자신들이 평가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  
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, 대학  
이 변화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량화가 필요하  
다는 생각이 들었다.

그러나 지난 몇 년간에 과학계, 특히 생명과  
학 부문에서 벌어지는 특정 학술지 숭배 분위  
기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. 생명과학  
분야에서 셀, 네이처,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내  
는 것이 최고의 목표처럼 되었기 때문이다. 이  
들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 대형 연구비를 수주  
하는 보증수표가 되고, 과다할 정도의 각종 인  
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한걸음 더 나아  
가 이들 논문에 몇 편 실는가를 아예 정책의 목  
표로 삼고, 심지어 논문 발표자에게 포상금까  
지 준다는 말도 있었다.

이들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

어렵다. 제출되는 논문의 5% 미만만이 수락되  
기 때문이다. 실제로 학계의 좋은 발견이나 발  
명들이 이 학술지들에 실렸고, 노벨상으로 이  
어진 경우도 꽤 있다. 그러나 이들 학술지에 논  
문을 발표하는 것을 업적평가의 최고 지표로  
삼는 것은 과학이라는 행위를 너무 단순화하는  
것이다.

과학은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. 지적  
호기심의 발로, 논리적 사고방식, 수수께끼를  
해독하는 듯한 태도 등은 과학의 본질이다. 수  
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“결과가 아  
니라 과정을 즐기라.”고 조언하는 데에는 그만  
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.

**반** 면 우리의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에  
대한 이해와 논의는 거의 없이 그 학  
술지에 실리는 것 자체에 열광한다.  
이러한 분위기는 “사이언스지에 냈기 때문에  
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았다.”느니 하는 비약적  
인 주장으로 연결되어 황우석 스캔들이 지구전  
으로 돌입하는 데 큰 몫을 했다.

이 잡지들은 원천적인 발견이나 핵심 기술의  
발명도 있지만 트렌드를 많이 따른다. 즉 새로  
이 부각되는 부문이나 집중 조명을 받는 인기  
분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. 유행하는 분  
야에서는 단순한 테크닉을 써서 그다지 많은

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가설을 가지고 실험  
결과를 냈을 때도 이들 학술지에 발표되는  
반면,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그보다 몇 배 어  
려운 기법을 쓰고, 심오한 가설과 논리를 가지  
고 성과를 내어도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  
다. 이런 이유로 인해 한때 이들 잡지에는 논문을  
발표했던 젊은 과학자들이 몇 년이 지나면 생  
명력을 잃고 스러져간 경우가 꽤 많다. 이런 특  
급 잡지들에 상당수의 논문을 발표한 생물학자  
가 하버드대학교 같은 곳에서 승진하지 못한  
경우도 있는데, 그것은 과학의 깊이가 없다고  
판단되었기 때문이다.

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 학술지에 실리는  
연구성과의 상당수는 기초과학적인 것으로 제  
품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. 생명공학 육  
성 정책의 주요 목표가 실용화나 성장동력의  
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학술지에 게  
재된 논문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검  
토해봐야 할 것이다.

셀, 네이처,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내는 것은  
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과학인을  
평가하는 최고의 잣대나 정책의 중요 목표가  
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연구성과의 과학  
적, 산업적 의미가 단순히 학술지의 명성에 의  
해 축소 혹은 과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.